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09	08. 16	08. 23
대표 기도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한명희 집사
성경 봉독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헌금 위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내 위원	유미경 집사	유미경 집사	유미경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삼시다(요4~17장)
2.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3. 주일예배-정해진 시각에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대면예배 참석에 힘쓰시기를 권합니다.
4. 연주-김효중 집사(8~9월, Luzern, 스위스)
5. 나눔의 시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이수현 집사(4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사도신경(새번역).....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483장..... 다같이
- 기 도 Gebet정용현 안수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마 8 : 18 - 22(신p12)..... 이상호 목사
(Matthäus 8:18-22)
- 설 교 Predigt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485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이수현 집사

하나님은 한 국가에 머물지 않으신다.

어느 해인가, 가난하지만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두 나라, 브라질과 필리핀을 찾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서 모두 읽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여해 보라는 권유에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이 국가들의 기독교는 '신혼'단계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말 그대로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단계에 접어든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덴마크 교회들의 침탑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만, 정작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관광객뿐이었습니다. 덴마크 제일의 기독교 사상 Kierkegaard(키에르케고르)의 자취를 느낄만한 곳을 물었으나 누구 하나 대답해주지 못했습니다. 박물관에 걸린 포스터에는 덴마크의 종교적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문화 유적의 하나일 뿐이라는 씁쓸한 설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몇몇 국가는 '중년'단계에 접어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은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며 대학 강단과 주요 직종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회와 선교 단체들을 보면 때로 하나의 산업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몇몇 통계를 보니 서구 선진국들의 기독교인 숫자는 전 세계 신자의 37 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를 여행하고 교회 역사도 꽤 많이 뒤적인 끝에 나는 역사적 패턴 혹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중동에서 유럽과 북미를 거쳐 개발도상국들로 옮겨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 하나님 웬일이세요 / Philip Yansi

*** 철저한 믿음은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선물이다.**
- Walter Brügemann(목사, 구약신학 교수 역임) -